6자회담 연내 재개 신경전

남·북 수석대표 전격 회동 "아직 조율할 문제 남아 있다"

'6자회담의 연내 재개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2~3일 진행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남북한 당국자간 회담 결과를 통해 도출해본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지난달 29일 북미간 베이징 협상이 큰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30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시내 한 식당에서 회동했다.

7개월 만에 이뤄진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천 본부장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면서 "6자회담을 재개해 진전을 이룬다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고 구체적으로는 의견을 조율할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상도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6자회담 조기 재개 가능성을 논의하러 (베이징에) 왔는데 동족으로서 천영우 선생과 만나 6자회담을 앞으로 어떻게 열 것인가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또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훈"이라고 했지만 '핵을 폐기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일방적인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본부장은 특히 이날 회담 후 하루 전의 북미회동 성과와 관련, "이번 북미 회동에서 양측이 상호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섣불리 부정적인 전망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측 제안을 검토해서 답을 주기까지 시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회담 재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천영우(오른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30일 베이징 시내 한 식당에서 회동, 6자회담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대표 "6자회담 재개 큰 틀에는 이견 없어"

北 "일방적 핵폐기 없다"…日 6자 참가 자격없어"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지난달 29일 북미협상에서 즉각적인 성과가 없다하더라도 6자 회담 재개에는 희망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미국의 제안을 받은 북한의 검토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6자회담 재개 일정과 의제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베이징 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도 이같은 전망을 보여준다.

이 당국자는 "북·미 베이징협의는 서로의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오해를 푸는데 유익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회담이 안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회담 재개 일정과 관련 "날짜는 별로 중요치 않다. 연내에 빨리 개최해 잘 안 되는 것이 나은가, 1월에 시작해 잘 되는 것이 나은가" 라고 말했다. 때문에 6자 회담 재개가 연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는 미국의 힐 차관보를 만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힐 차관보는 6자회담이 쉽지 않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한 것이나 일본 외무성이 북핵 6자 회담의 연내 재개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의 경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바뀌었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뚜렷한 결론 못 내리고 있는 듯하다"며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갖느냐 여부가 회담서 뭘 내놓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에이즈 퇴치 상징

레·드·리·본

세계에이즈의 날(12월1일)을 맞아 지난 달 30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빨간 스카프를 손에 든 학생들이 에이즈 퇴치 염원의 상징인 '레드 리본' 모양으로 줄을 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에이즈 질곡 못 벗어나는 아프리카

■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

세계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자를 보유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각국에서는 에이즈 퇴치와 대처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전개된다.

약 500만명의 HIV 보균자가 있는 남아공은 1일 5개년(2007년~2011년) 에이즈 퇴치·예방 대책 초안을 발표키로 하는 등 이 불치병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보균자 40%·사망자 72% 차지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대륙인 아프리카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HIV 감염자를 양산하는 가운데 노동력 감소와 평균 수명 감소, 개발 예산을 에이즈 대처에 투입해야 하는 등 이 전염병으로 인한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에이즈를 완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프리카가 에이즈라는 부담을 가까운 시기에 벗어날 수 있는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아프리카의 에이즈 현황**=세계적으로 4천만명의 HIV 보균자 중 63%인 2천470만명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있으며, 이중 40%는 남아공 등 남부아프리카에 집중돼 있다.

유엔에이즈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달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210만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는데, 이는 전체 사망자의 72%를 차지한다.

에이즈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가 양산되는 것도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아프리카에만 1천200만명의 에이즈 고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프리카에 왜 HIV 보균자가 많나**=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자원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처 부족, 일부다처제와 가부장적 전통 등 문화적 요인 및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유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15세 연령층의 10명 중 1명꼴로 성관계 경험을 가졌으며, 16세는 5명중 1명 꼴 및 18세부터는 과반이 성경험을 해 일찍부터 성관계를 갖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어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또한 빈곤층 가족의 소녀들이 생활전선에 내몰리는 사회·경제적 요인도 성매매 등에 따른 HIV감염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의 혼선도 HIV대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빈곤층 소녀 성매매 등 감염 주요인

◇**대책**=에이즈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관계로 ARV 투약 대상을 확산시키는 게 주요 대책이지만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ARV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이 에이즈 감염 방지에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연구단계일 뿐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비자면제 완화 프로그램 추진

기각률 3% 조건 삭제 방침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들에 대해 이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국은 그동안 비자신청 기각률이 3%를 밑돌아야 한다는 VWP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못했으나 미국 정부는 컴퓨터 칩 장착 여권 도입 등의 특정 조건을 갖춘 나라들에 대해서는 기각률 3% 미만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미 의회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조건의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투머스 헨드릭 일베스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우리 의회 및 외국 파트너들과 우리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자신청 기각률 3% 미만 조건을 없애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워싱턴 타임스는 전했다. /연합뉴스

/ 프로필 /

한미·남북관계 정통 '합리적 보수론자'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합리적인 보수론자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국방·통일·국제정치 분야의 전문가이다.

육군사관학교 출신(22기)이지만 초임 장교시절을 제외하고는 줄곧 육사교수로 일해왔으며 1995년 육사 교수부장을 끝으로 준장으로 예편한 뒤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2000년부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군 출신으로 국방문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세종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까지 식견을 갖춰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올 라운드 플레이어'가 됐다.

가족은 부인 송주연 여사와 1남1녀.

▲63세 ▲광주 ▲목포고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미 노스캐롤라이나대 정치학 박사 ▲1981년 육사 사회과학과장 ▲1993년 육사 교수부장 ▲1996년 세종연구소 부소장 ▲2000년 세종연구소장

'화장실은 탑승전 다녀오세요'

中 항공사 연료절약 캠페인

중국의 한 항공사가 하중에 따른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 탑승전에 화장실에 미리 다녀올 것을 승객들에게 제안하는 등 연료절약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남방항공사는 3만피트 상공에서 화장실 물을 한번 흘려내리기 위해 연료1ℓ 가 소모된다는 점에 착안해 탑승객들에게 항공기를 타기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와 줄 것을 당부했다.

항저우-베이징간 정기노선 기장인 류 즈위안은 "화장실 물을 한번 흘려보내기 위해 사용된 에너지로 저연비 자동차를 최소한 10㎞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56명
KPA회원 2006년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량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6개월화원제 / 1년 화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2개월 종합반-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 1개월 무료 동영상제공(화원제) • 전용자습실 사용 가능
• 정독서실, 고시원 할인 혜택 • 사물함 무료사용 가능
•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특강 수강 • 심화반 선별 맞춤 수강
• 매월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 형 법 조태엽 교수 |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 사 오수평 교수 | 영 어 오순아 교수 | 영 어 김지선 교수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합격 절호의 기회!!
교정직 특채
★ 2007년 700여명 모집예상!! ★
영어없이 두과목만 응시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2006년 교정직특채반 최초/최다모집의 합격노하우로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것입니다.
www.mdgosi.co.kr
개강 1월 2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www.kjkimyoung.co.kr
대학편입 마무리과정(6주)
개설과목 :영어/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1차개강: 12월 1일, 2차개강 : 12월 4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 · 개강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 · · · 1월예정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 227-8088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지금이 찬스
농어촌 및 도시 가정용 심야전기 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심야전기보일러 구입 신청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심야 전기 보일러를 못놓으신분
목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
지금 전화한통이면 설치완료
선설치후 최대 36개월 분할 납부 가능
※21평형 398만원 한전불입금 내선공사비·설치비 보일러포함(온수기 별매)
아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기름보일러 월 난방비용 200,000~400,000원 이상 사용가정 - 난방온도 60℃ -
심야전기보일러 월 난방비용 약 2~7만원 이면 OK - 난방온도 90℃ -
※(주)경동보일러-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서비스※
경동보일러 상담문의 010-9469-9373 (062)673-4981